**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봄과 여름이 지났고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 좋은 계절에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9월 15일(9월 16일 01:45)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함께 하고자 3월에 입국했는데, 쇠약한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주님께 의뢰하며 자매들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저는 주께 돌아온 한 마리의 양과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기다리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2021년 한국에서의 시간은 눅14장 제자의 조건은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여서 맛과 부패를 방지하고 바다물의 3.5%의 염도를 유지해서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깨달음을 나누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새로운 사역의 방향과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저에게 또다른 영적 도전이며, 손경민의 찬양 “은혜”는 위로와 치유였으며 회복과 충전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치과 치료는 잇몸뼈가 없어서 어려웠는데 치과 원장님의 귀한 섬김과 파송 교회의 진료비 지원도 받고, 아래 앞니의 임플란트 기초 나사 2개를 심고 위 오른쪽 송곳니의 브릿지(Bridge: 고정성 가공의치)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입국하면 임플란트를 할 예정입니다. 치료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서울에서 가정을 공개하며 숙박을 제공한 귀한 섬김의 손길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셔서 온라인 성경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새 길을 열어 주심과 같이, 엘리야 선지자가 손바닥만 한 구름을 보고 큰 비를 예상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동역자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는 것을 묵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A가 주 안에서 영육이 강건한 제자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H부인 가정(부부, 큰딸 가족 4명, 둘째와 셋째 딸:8명)의 누가 복음으로 구원받을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심령을 기경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간구해 주세요. N의 가정과 친정 어머니도 주께 지혜를 구하며 구원에 관한 이유를 질문하기까지 계속 교제할 것입니다. U부인과 딸의 가정은 딸이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태아를 통해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산하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한국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출입국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고 부산에서 인천 공항까지 자동차로 배웅하는 언니의 안전운전과 저와 수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중보해 주시고, 코로나로 조심스러워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아쉬움은 다음에 더 큰 기쁨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며, 저는 알지 못하지만 동역자님들의 기도제목도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를 의뢰하며,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마음과 출국 인사를 기도제목으로 드립니다.

한결같이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이 코로나와 들려오는 세상의 어려운 여러 소식에도 성령 충만과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눕니다.

2021. 9. 10. 김에스더 선교사 드림